

경찰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ww.police.go.kr



해양경찰청

제363호 (2023년 8월 7일 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한 총리 “각국 대표단 잼버리 계속 진행키로…모든 지원 제공”

잼버리 현장 브리핑…“타지역 프로그램 진행 권장, 교통 등 충분 지원 방침”

“샤워·편의시설 청결에 700명 투입”…의료진·쿨링버스·그늘막 확충 소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온열환자가 속출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 “각국 대표단이 회의를 열고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잼버리 현장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가장 많은 인력을 보낸 영국에 이어 미국까지 철수를 결정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마저 중단을 권고하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각국 대표단이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열어 대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회는 예정대로 오는 12일 평화한다.

한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폭염을 고려해 새만금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을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정부는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영외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해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잼버리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이를 연속으로 새만금 현장을 점검한 한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대회 진행 정상화를 위해 취한 조치도 소개했다.

한 총리는 사워 시설이나 편의시설 불편 문제에 대해선 “불시에 점검한 결과 처음 지적한 부분보다 상당 부분 문제가 개선됐다”며 “참가자들도 비슷한 개선을 실감하고 있다고 제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워·편의 시설 청결 유

지를 위해 700명 이상의 서비스 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현장에 쿨링버스 104대를 추가 배치했으며 국방부는 1천124평 넓이의 그늘막, 캐노피 64동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의사 28명, 간호사 18명, 응급구조사 13명 등 총 60명의 의료 인력이 추가 투입 됐으며, 서울대병원(11명)과 세브란스병원(18명) 등 민간 대형병원에서도 의료 인력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사워시설 등 편의시설 보수·증설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투입했고, 그 외 20여개 기업과 기관에서 생수, 이온음료, 아이스박스, 손선풍기, 양산 등 폭염 예방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다만 “저희는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참가자들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 및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는 중 네덜란드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잼버리가 끝나는 날까지 참가자들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영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북 외 지역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면

서 “지자체와 협의해 영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철수 국가들에 대해서도 “(철수한) 개별국의 의사를 존중하고, 교통편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영국, 미국, 싱가포르) 외 다른 국가의 철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다음주 비 예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우리가 5월부터 장마를 겪으면서 어떤 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잼버리 야영장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 김원중 기자

‘분당 흉기난동’ 20대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살인미수 등 혐의…영장심사 출석 당시 동기 등 질문에 ‘묵묵부답’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



영장실질심사 마친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상이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하차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만 받았다.

앞서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 전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송원기 기자

잇단 ‘묻지마 범죄’에 與내부 “사형 집행”·“정당방위 확대”

경찰 면책권·흉악범죄 형량 강화 주장에 대통령 직속 TF 구성 의견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거나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거기에 인권을 논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범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흉기 난동과 물

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흉악 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야당 시절이었던 2021년 제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시비에서 경찰관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면책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묻지마 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엄정한 흉악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박지환 기자

SAMSUNG

Galaxy Z Fold5 | Z Flip5

사전판매 | 23.8.1 ~ 23.8.7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제품 출시 일정은 미정입니다. *Galaxy Z Fold5, Z Flip5, Z Fold4, Z Flip4 출시일정은 미정입니다. *플렉스 모드가 충전하는 정도는 75~115%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원전히 출처거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재·책임 떠넘기기’ 챔버리 부실 초래했다

2017년 대회 확정 후 6년 준비기간 있었지만, 준비 ‘부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챔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챔버리가 과 행한 것을 두고 대형 국제행사에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이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챔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후, 무려 6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대회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집행을 맡은 전라북도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3개 부처 공동위원장 체제 탓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5일 정부에 따르면 세계챔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총 5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한 부처에서 총괄조직위원장을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는데, 세 명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다 보니 누구도 나서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

특히 여가부는 2020년 7월 챔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회를 맡아온 만큼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챔버리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도 2020년까지 여가부 정책기획

관을 지냈다.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지난 2월 말 공동위원장으로 추가 선임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 새만금 현장에서 정부 입장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그 동안 주로 여가부와 전북도가 주축이 돼서 추진했다고 밝혔다.

여가부·행안부·문체부 등 공동 책임이지만…“누구도 책임 안 져” 지적 국감 등 “대책 마련해야” 지적에도 여가부·전북도 등 대비 제대로 못해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직접 선제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챔버리를 책임지겠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뒤늦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계챔버리가 조직위의 민간 행사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조직위 사무국에도 부처 파견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사인 데다가, 예산이 1천억원 가량 투입됐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진작에 책임을지고 전면에 나서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안부도 국가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 ‘폭염·폭우’ 우려 있었지만 묵살 “여가부·전북도 책임 커”

앞서 챔버리를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측에서 꾸준히 제기됐지만, 사실상 모두 묵살됐다.

전북 부안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원택 의원은 작년 10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 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절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대회가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 대책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때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아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행사 당일까지 마련한 폭염 대책

해 애영지 행사를 취소하거나 대회를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북도 또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시 대회를 유치한 송하진 전북도 지사는 “전 세계인이 새만금을 애영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며 “(스카우트 대원들이) 몸만 와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장밋빛 기대를 남발했다.

챔버리 부지는 당초 농업용지로 조성된 터에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침수 우려가 이전부터 제기됐다.

학생들의 여름방학에 맞춰 대회가 열리므로 일정 변경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반 시설은 제대로 정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세계챔버리 대회에 책정된 예산은 1천억원에 달했으나, 제때 쓰이지 못해 다음 해로 이월되는 일이 잦았다.

전북도는 부지 침수와 폭염 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부처에 원활한 예산 집행을 줄곧 요구했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할

은 덩굴 터널과 수도시설에 그쳤다.

제공되는 냉수와 얼음도 턱없이 부족 했다. 행사 초기에는 냉방시설도 전무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도 부실하거나 상해 있어 빙축을 샀으며, 화장실과 사워실 시설도 지저분하고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 세계챔버리의 문제점을 점검해볼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던 ‘프레챔버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됐다.

이후에도 프레챔버리만 개최됐어도 지금 현실로 나타난 문제점을 상당수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폭염으로 인

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챔버리의 주관 주체는 챔버리 조직위원회이고, 여가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면서 “도 입장에서는 어떤 사안이 결정 나면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조직위 차원에서 폭염 안전대책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만, 공동조직위원회를 맡은 부처들과 전북도 중 누구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아 초기 실행력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겠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누군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집행했다면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흥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선별적 검문검색도 가능하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 임성준 기자



강남역에 배치된 경찰 특공대원과 장갑차

전철역엔 경찰·백화점 앞엔 장갑차

“안심” vs “어수선”

토요일인 5일 서울 지하철 잠실역 일대와 인근 롯데백화점에 평소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주말이면 보통 쇼핑이나 나들이를 하러 나온 시민으로 북적이는 이곳에 곳곳에서 경찰이 눈에 띈 것이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에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시작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이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잠실역 일대에만 기동대 61명과 경찰특공대 4명이 투입돼 집중 순찰을 했다.

방검복을 입고 3단 진압봉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은 2인 1조로 잠실역과 지하상가,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을 순찰했다.

이들은 쉴 새 없이 잠실역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시민을 지켜보며 의심스러운 징후가 없는지 살폈다. 시민들이 쇼핑몰 푸드코트를 가득 채우고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상황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잠실역 일대는 온라인에 잇따르는 ‘살인 예고’ 게시물에도 거론된 곳이다. 지난 3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일 거다”라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당초 기동대는 방패를 지니고 순찰에 나서려 했으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방패는 버스 안에 두고 내렸다.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선별적 검문검색도 가능하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검문검색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현장에서 순찰하던 경찰은 “현재까지 뚜렷한 거동 수상자를 찾기 어려워 검문검색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은 “시민들이 불편과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면서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거동 수상자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검문검색을 벌이지는 않으려 한다”고 했다.

순찰 직전에는 기동대원을 상대로 “대상자를 유심히 보고 자연스럽게 대화 유도해 검문하라”는 내용의 매뉴얼 교육이 이뤄졌다.

시민들이 공권력을 믿고 편하게 외출 할 수 있도록 순찰 중 휴대전화 이용과 잡담을 자제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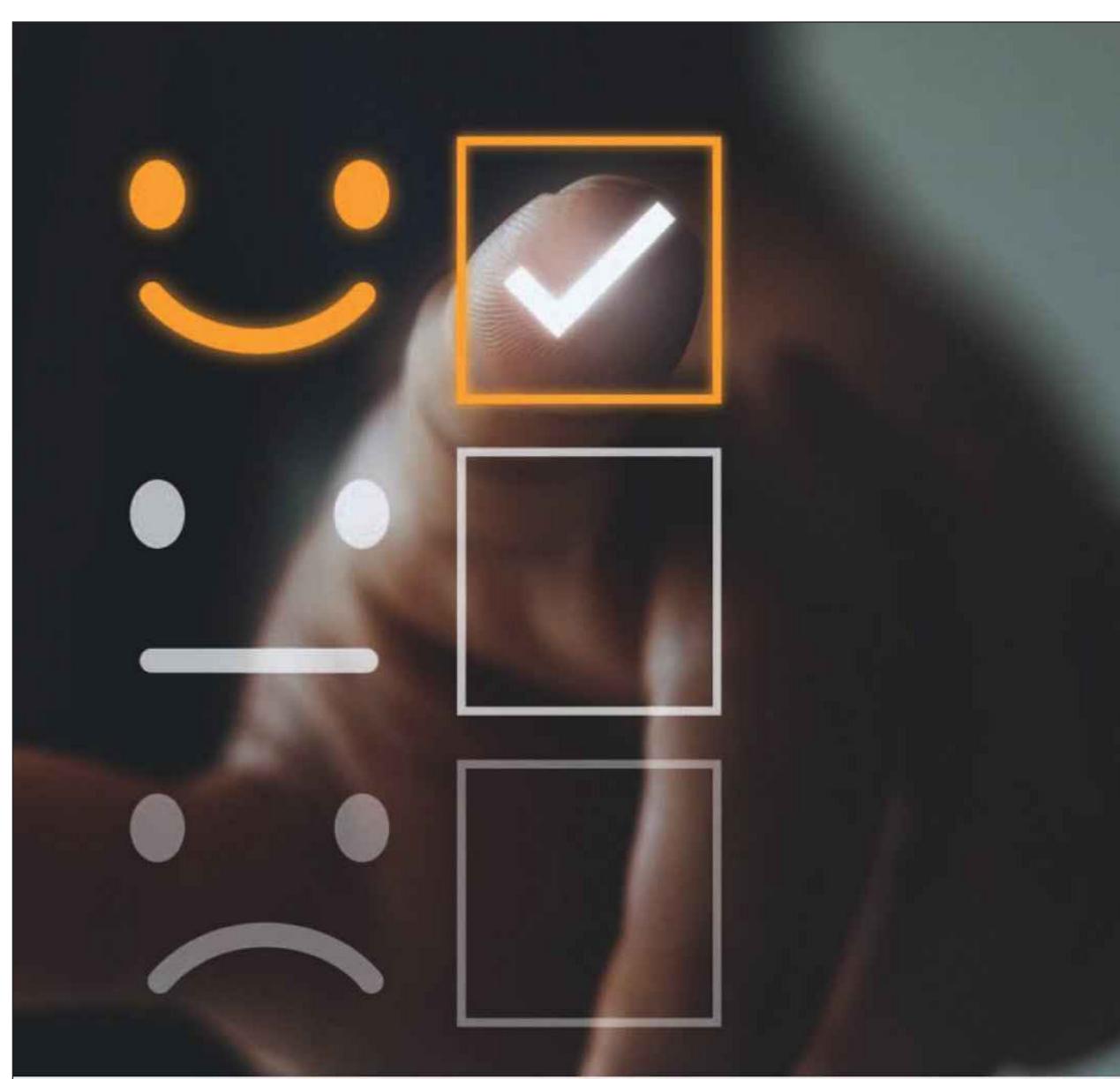
오후 4시께부터는 잠실역 2번 출구 앞에 장갑차 1대도 배치됐다. 인파로 붐비는 서울 변화가 한복판에 장갑차가 등장하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다.

롯데몰산 측도 폭발물 탐지기를 배치하는 등 자체적으로 경비를 강화했다.

안전요원도 방검복을 입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롯데월드몰에서 친구와 쇼핑하던 김미선(51)씨는 “잠실역에서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오는 게 맞나?’ 많이 고민했는데 짹깝린 경찰들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된다”고 말했다.

/ 신경민 기자



손해보험에 대해 상담받고 싶을 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전화
대표 콜센터
02-3702-8500

인터넷 & 모바일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consumer.knia.or.kr)
접속 ➔ 보험상담 접수

카카오톡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채널 추가 ‘상담’ 메뉴 클릭
* 이용 가능시간: 09:10~11:30, 13:10~17:30 (주말, 공휴일 제외)

•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상품별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전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험소비자가 어디에서든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22.6.14.부터 카카오톡 상담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이차전지주 손바뀜도 잣아…에코프로 회전율 올해 들어 766%

최근 주식시장에서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인 이차전지 종목들이 높은 주가에도 손바뀜이 잣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황제주' 에코프로의 회전율은 766%로 집계돼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평균 회전율(343%)의 2배가 넘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엔의 회전율은 340%, 엘엔에프는 461%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POSCO홀딩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회전율도 각각 227%, 249%로 유가증권시장 평균 회전율인 176%를 상회했다.

회전율은 일정 기간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손바뀜)가 자주 일어났다는 의미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회전율이 급등했다는 것은 종목이 과열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인터넷 버블 등 이전에도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열이 있



긴 했지만, 이번 쏠림 현상이 경험한 쏠림 중 가장 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에코프로의 주가는 연초 대비 967% 급등했다. 지난달 18일 111만8천원으로 종가 기준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해 이른바 '황제주'에 올랐으며 급등락을 반복했지만, 11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 주식이 비싸지면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않는 경향이 있어 일부 개인투자자

들에서 에코프로의 액면분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회전율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회전율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주가(4일 종가)는 9천214원으로 에코프로 주가(117만4천원)의 0.8%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차전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과도했다면서 주가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웅찬 연구원은 "이차전지는 현재 실적이 부진한 데 더해 개인 수급도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가 하락해 그동안 과도했던 부분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차전지 쏠림 현상은 정점을 통과했다고 생각하나, 위낙 수급의 힘이 세다 보니 주가 상승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거래 대금 등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여기서 주가가 더 상승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의 거래대금은 지난달 26일 4조1천36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 4일 8천410원으로 줄었으며 에코프로비엔도 지난달 26일 5조6천280억원에서 지난 4일 3천710억원으로 급감했다.

/ 이순형 기자



한여름에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 독감 주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감기 기승

독감환자 유행기준 3배

독감 유행 1년 내내 이어질 기세

연일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통상 겨울·봄 기승을 부리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독감이 아닌 바이러스성 감기 유행도 계속 심하다. 여기에 코로나19 유행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기온이 높지만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5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30주차(7월 23~29일)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는 15.0명이었다.

직전주(29주차) 17.3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2022~2023년 절기 유행기준인 4.9명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독감 환자는 봄을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유행의 꼬리가 유독 길고 두껍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할 때 마스크 착용과 활동량 감소로 독감 유행이 없었는데, 이로 인해 한동안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 획득이 적었던 것이 올해 유독 긴 유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절기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올해 8주차(2월 19~25일) 11.6명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증가해 20주차(5월 14~20일)와 21주차(5월 21~27일) 각각 25.7명까지 늘었다. 이후에는 10명대 중후반~20명대 초반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독감 유행은 취학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서 특히 심한 편이다. 30주차 연령대별 의사환자 분율을 보면 7~12세가 29.7명, 13~18세가 29.0명으로 단연 높았고, 1~6세는 15.0명, 19~49세는 18.0명이었다. 50~64세와 66세 이상은 각각 9.4명과 6.2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콧물, 두통, 가래,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유행도 여전히 크다.

/ 김호진 기자

"담임 탓 수능 못 치러" 거짓 퍼뜨린

학부모 벌금 600만원

담임교사가 맘대로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응시하지 못했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1년 11월10일 온라인 카페에 "고3 학생인데 학생과 부모가 시험보지 않겠다고 했다며 수능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아이는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이는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고 카페 회원에게 교사의 신원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같은 해 11월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건의사항 게시판에 '고3 학생 담임교사가 수능 원서 접수 안 해서 시험 못 본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학부모이자 보호자와 상의한마디 없이 원서접수 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쓴 험의도 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수 차례 원서 작성일을 알렸다. 원서를 쓰기 전날에는 '수능 원서 접수로 익일 반드시 등교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원서 접수 당일에는 장씨 자녀가

등교하지 않자 장씨와 통화해 "저는 봤으면 좋겠는데 얘가 안 본다고 그런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담임교사에 대해 "학생 의사 확인 등 불충분한 업무수행으로 장씨 자녀의 수능 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이 여러 차례이고 담임교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 조유진 기자

서울백병원 직원·교수 264명, 폐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영규 교수협의회장은 전날 신청서 제출 사실을 알리며 "법인의 폐원 의결 과정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해 무효이며 직원들을 부산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임을 가처분 신청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인제학원 이사회는 앞서 지난 6월 경영난을 이유로 서울백병원의 폐원을 결정했으며, 이에 병원 층은 오는 31일까지 모든 환자 진료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부산에 있는 형제 병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지난달 통보하기도 했다.

서울백병원 교수와 직원들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폐원 결정이며 부당 전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직원들은 전날 오후 서울백병원에서 설립자 백인재 선생 가옥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김강우 기자

조계종, 폭염 속 캠버리 대원에 170여개 사찰 개방…야영지 제공

템플스테이 사찰서 숙박도…“韓 전통문화·역사·자연 체험하도록”

대한불교조계종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0여개 사찰 시설을 야영이나 숙박용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전국 24개 교구 본사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약 147개 사찰 및 종단이 직영하는 한국문화연수원 등에서 잼버리 참가자가 야영이나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은 5일 전국 사찰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잼버리 긴급 지원 지침을 시달렸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참가한 각국의 청소년들이 남은 기간 보다 편안하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각국 청소년 등이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조계종은 잼버리 기간 전북 김제시 금산사, 고창군 선운사, 부안군 내소사에서 함께 약 9천명 규모의 참가자를 수용해 영외 체험활동을 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었는데 폭염으로 겪는 부담을 줄이도록 이처럼 시설 제공을 확대한다.



사찰 체험 활동하는 잼버리 참가자

조계종 관계자는 "잼버리 자체가 자연 속에서의 야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 사찰 내 부지를 야영지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며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 현민석 기자

지중해 해초 군락지 잘피숲을 소개합니다

지중해 바다속에는
아마존보다 15배 많은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강렬한 기후 해걸사로 불리는
'잘피' 바다숲이 가꿔져 있습니다

나무숲보다 50배 더 빨리 탄소를 흡수하고
맑은 산소를 이김없이 공급해 주는
블루카본 식물, '잘피'

KB금융그룹은 우리나라 남해바다에도
잘피숲 조성을 위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바다의 사막화를 막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친환경 활동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 바다숲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경상남도 남해군 일대에 30년생 소나무 약 10만 그루의
식재 효과를 내는 약 9천 평의 잘피숲을 조성합니다

잘피 3㏊당 평균 400본 CO₂ 흡수 / 30년생 소나무 1㏊당 1,000그루당 평균 11톤 CO₂ 흡수
잘피 3㏊ 조성을 통해 30년생 소나무 10.9만 그루의 식재 효과 발생

총 카본捕捉액션 국제산림협력원

KB 금융그룹

현역의원 첫 구속에 돈봉투 수사 탄력…‘정점’ 송영길로 성큼

송영길 지시·관여 여부가 핵심…“필요한 시기에 조사”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왼쪽) 이성만(오른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62) 의원의 신병을 4일 확보하면서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돈봉투를 직접 견낸 것으로 지목된 윤 의원을 상대로 수수 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역 국회 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밟힌 윤 의원의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2021년 4월 28~29일 이틀에 걸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했다는 게 윤 의원의 혐의다.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수 의원 20명의 면면에 대한 확인 작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윤관석 의원 구속…수수 의원 확인 후 본격 조사 예상

명단이 최종 정리되면 수수 의원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윤 의원은 금품 살포와 수수 의원 특정의 ‘키맨’”이라며 “이제 구체적인 수수의원 규명으로 넘어가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올해 5월과 6월 두 차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 수십명과 송 전 대표 보좌진 등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 돈봉투 전달의 시기와 장소, 수수자 범위를 좁혔다.

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공범으로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 캠프에서 당내에 살포한 것으로 지목된 9천400만원 외에 추가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입·사용된 정도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특히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막고사는 문제연구소’가 조달 창구로 지목되면서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당대회 관련 불법자

최근에는 송 전 대표 전직 비서관을 암수수색해 돈 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된 모임 참석자 명단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에게 성큼 다가갔

금 유입 및 사용 전반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면 필요한 시기 송 전 대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증거가 차고 넘쳐난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애먼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해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두 차례 ‘셀프 출석’했지만 검찰이 돌려보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무소속 이성만(61) 의원에 대해서도 법원이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 송진영 기자



신평, ‘與 수도권 전멸 발언’ 사과 “내 불찰이고 죄송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던 신평 변호사가 5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 말이 여당 후보를 지망하는 이나 관련된 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말에 정신이 아득하다”면서 “이 사과가 그들에게 제발 작은 치유가 되기를 빌 따름이다.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이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또 “여권이 총선에서 참패하면 어떠한 하나 하는 조바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분발을 촉구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평 변호사는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의 급한 전화가 왔다. 그는 (수도권 전멸) 여론조사를 당에서 결코 실시한 일이 없다고 했다”며 “대형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5억원대의 자금 지출이 필요한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그(핵심 당직자)의 솔직한 성품에 비춰 허튼 말씀을 할 것도 아니니 결국 내 말이 틀렸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설사 귀신에 훨린 기분이라 하더라도 내 사정이자 객관적 진실은 그의 말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내년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고, 전체 의석수도 지금보다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신당 창당설’에 대해 “황당무계한 얘기”라며 일축했고,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멘토를 자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 백진수 기자

SK telecom Troaming

**혜택이 넘치는
가족로밍의 탄생**

가족 중 1명만 baro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만 추가하면
더 넉넉해진 데이터를 온 가족이 공유하고 온 가족 baro 통화, 문자 무료

더 넉넉해진 baro 요금제 혜택

혜택1. 전 세계 188개국에서 내 폰 번호 그대로
혜택2. baro 통화, 문자 무료
혜택3. 0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님 상당 50% 할인

SK Telecom logo and WAVE logo

202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D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민주 “잼버리 난리도 文정부 탓? 무능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잘 됐으면 前정부 덕이라고 했겠나” “1년간 집권세력 한 일 없다는 것 실토”

더불어민주당은 5일 새 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을 두고 여당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자 현 정부의 실정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잼버리 장소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했고, 문재인 정부는 유치전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유치 후 제대로 준비했는지, 특히 대회 직전인 작년부터의 준비는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가 시스템과 행정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안전을 위협으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전용기 의원은 SNS에 “잼버리 난리도 전 정부 탓? 무능하면 겸손하기라도 하든지”라고 적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잼버리 잘 됐으면 전 정부 덕이라고 했겠나”라고 따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수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집권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놀랍도록 무책임하다”며 “지난 1년간 정부·여당이 집권세력으로서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실패가 자명해 보였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이어받아 10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누구도 전 정부 탓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자당 이원택 의원이 폭염·해충 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점을 부각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의 사태를 직접 본 듯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을 때 자신만만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치더니 그게 이 모양”이라며 “세계 대회를 이따위로 준비한 나라가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 최석호 기자

북한 “미국이 핵전파방지제도에 위협…‘핵공유’ 걷어치워야”



북한, 김정은 전술핵탄두 시찰

이어 미국이 “오커스” 동맹의 간판 밑에 오스트랄리아(호주)에 대한 핵전파를 강행”라고 있으며, 한미 핵협의그룹을 가동 및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등을 거론한 뒤 “군사적 긴장수위를 핵전쟁 발발 전야로 격상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는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핵 위협으로 초래된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대처해 핵전쟁 발발을 방지하고 조선반도(한반도)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포장했다.

미국·영국·호주가 결성한 ‘오커스’의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기 때문에 이에 맞서 핵을 개발했다는 억지 논리다.

대표부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 세계 최초의 핵 사용국인 미국은 핵 군비 경쟁을 조장하는 비핵국가들과의 ‘핵 공유’와 ‘확장억제력 강화’를 걷어치워야 한다”며 미 전략자산 전개 등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북한은)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사용 및 위협금지와 핵전파방지의무를 공약한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며 “공화국 핵무력은 우리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존중하는 나라들에 절대로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임순철 기자

밤에 용인서 40대 흉기 들고 배회…방검장갑 낀 경찰이 제압

과거 정신병력 진단받아…현재는 치료 중단 상태인 듯

밤에 흉기를 들고 경기 용인시의 길거리를 배회하던 40대가 방검 장갑을 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8분께 “용인 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도로에서 식칼을 든 남성이 돌아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흉기를 든 남성은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에서부터 흉기를 든 채 거리로 나온 A씨는 행인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건물 출입문을 두들기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 이상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민 다수와 마주치기도 했으나,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4분 만인 오후 9시 42분께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 150여m를 달아났



경찰에 제압되는 A씨

다가 뒤쫓아간 경찰에 의해 3분 만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든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하기도 했으나, 방검 장갑을 끼고 있던 경찰이 A씨

의 팔을 잡아 꺾은 후 뒤로 수갑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흉기 관련 사건으로 비상 근무 체계가 가동되고 있기에 출동 경찰관도 방검 장갑 등 보호장구를 갖추고 대응했다”며 “제압한 경찰관은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A씨 가족 측 진술에 따르면 A씨는 과거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왔으며 특별한 직업 없이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엔 정신 관련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정신감정 등을 통해 A씨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임준성 기자

“원아들한테 욕하고파”, “사고 내고 싶다”…운전 공무원 해임

동료들에게 욕설 퍼붓고 불성실 근무…법원 “징계 마땅” 판결



직장동료들로부터 무시와 따돌림을 당했다며 동료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고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를 혐담한 운전지 공무원이 결국 형사처벌에 이어 직장까지 잃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버스를 몰았던 A씨는 2021년 1월 18일 동료 직원 4명에게 심한 욕설을 섞어 신변에 위협을 가할듯한 폭력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동료들의 가족들까지 들먹이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를 혐담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주변에 “애들 데리고 버스 운행하며,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라거나 “원아들에게 욕설해도 되느냐”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어떤 날에는 이를 동안 직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합쳐 총 289차례나 연락하는가 하면, 감사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초과근무를 신청해놓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동료들 몰래 사무실 열쇠를 복사해 소지하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협박한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는 결국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에 불복해 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 했으나 기각되자,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라거나 ‘원아들에게 욕해도 되느냐’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의도와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289회에 걸친 연락 행위는 차량 수리와 관련한 보고를 하기 위함이었고, 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 징계사유를 모두 부정하며, 모든 행위는 동료들의 무시와 부당한 대우,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부모를 혐담하거나 원아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원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거나 폭력적인 언행에 해당하는 등 사회 통념상 비난만을 말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법령 준수,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갑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 곽학준 기자



검찰, 코인 사기범 뒷돈 챙긴 ‘사건 브로커’ 구속

가상화폐(코인)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기범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쟁진 이른바 ‘사건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A씨와 공범 등 2명을 4일 구속했다. A씨 등은 수사당국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코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아 쟁진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을 우려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고위직 인사에 관여한 ‘알선 브로커’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 한은수 기자

이동관측 “전세금 부족해 배우자 명의 대출…투명하게 집행”

이같이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2015년 당시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민의 이주가 본격화돼 후보자 아파트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필요 했다”면서 “후보자도 당시 거주하던 전셋집 임대인의 요구로 이를 하게 돼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을 통해 충당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외부 활동 등으로 바쁜 후보자를 대신해 배우자가 대출 과정을 진행했고, 후보자는 담보를 제공했다. 대출과 자금 집행은 모두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 공동체인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신재일 기자

새벽귀가 야단치는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구속



50대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현행범 체포된 이모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대학생 이모(19岁)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전 2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어머니인 5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다.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이 오전 2시50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이 함께 출동해 만취한 이씨를 오전 3시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맞았고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강종윤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니제르 군부, 프랑스와 군사협정 파기…주요국 대사 해임

“공격에 즉각 무력대응” 경고…“ECOWAS 대표단, ‘빈손 귀국’”

군사정변(쿠데타)을 일으킨 니제르 군부가 프랑스와 체결한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 대사를 소환했다.

무력 개입 시 즉각 대응하겠다는 군부의 경고 속에 축출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이 현정 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등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니제르 쿠데타 주체인 이른바 ‘조국수호국민회의’(CNSP)는 전날 프랑스와 체결한 일련의 군사협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아마도 아브드라만 조국수호국민회의 대변인은 전날 국영 TV에서 “니제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프랑스의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고 군사 협력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1997년부터 2020년까지 프랑스와 맺은 5개의 군사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 외교부는 “군사협정 파기는 프랑스 정부가 승인한 합법적 정부만 할 수 있다”며 니제르 군부의 발표를 일축했다.

니제르는 사헬(사하라 사막의 남쪽 주변) 지역에서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맞선 프랑스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전략적 요충지다.

프랑스군은 쿠데타로 군정이 들어선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서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 용병의 영향력이 커지자 양국에



쿠데타 이끌고 있는 티아니 대통령 경호실장

서 모두 철수하고 거점을 니제르로 옮겼다.

니제르에는 현재 프랑스군 1천500명과 미군 1천100명을 포함해 독일, 이탈리아 등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이들 병력이 철수한다는 발표는 아직 없다.

니제르 군부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프랑스와 미국, 토크, 나이지리아 주재 대사를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니제르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시도는 니제르 군의 즉각적이면서도 예고되지 않은 무력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 니아메를 찾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대표단이 군부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ECOWAS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어제 니아메에 도착한 대표단은 예정대로 밤을

보내지 않고 니제르를 떠났다”며 쿠데타 지도자인 압둘라흐마네 티아니 조국수호국민회의 의장이나 양류 중인 바줌 대통령을 모두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표단은 ECOWAS 의장인 불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었다.

티누부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통해 대표단에 “니제르 사태의 결정적이고 우호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COWAS는 지난달 30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경제제재를 결의하는 한편, 니제르가 일주일 내에 바줌 정권을 복원하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일부터 나이지리아에 모여 현정 질서 회복 시한인 오는 6일 이후의 대응책을 모색 중인 EOCOWAS 회원국 국방 수장들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

다.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지만, 대표단 과정이 무위에 그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바줌 대통령은 지난 26일 군부에 억류된 이후 처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니제르의 현정 질서 회복을 위해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바줌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니제르는 물론 지역과 전 세계에 재앙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전했다.

그는 “사헬 지역에서 니제르는 인권을 수호하고 권위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는 최후의 보루였다”면서 “(쿠데타 성공 시) 전체 사헬 지역이 바그너 그룹을 통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는 티아니 대통령 경호실장이 이끄는 군부 세력이 지난달 26일 쿠데타를 일으켜 바줌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스스로 새 국가 원수인 조국수호국민회의 의장이라고 천명한 티아니 실장은 민주주의 정권 전복을 멈추라는 국제사회 의 요구를 내정간섭에 굽복하지 않겠다며 일축했다.

/ 박정민 기자



대법원 판결 후 뉴델리 인도국민회의(INC) 당사에 도착하는 간디 전 총재(가운데)

인도 야권지도자 간디, 대법원 선고유예로 ‘재기 발판’ 마련

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디 전 총재는 당시 유세에서 “어떻게 모든 도둑은 모디라는 성을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는 모디 총리와 은행 사기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보석재벌 나리브 모디 등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방 하원의원은 그에 대한 복권절차를 정식으로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간디 전 총재는 선고 이후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유죄판결 자체를 뒤집으려 애써왔는데, 판결 번복에 대한 판단은 서부 구자라트주 지방법원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간디 전 총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연 기자회견에는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그 다음날, 진실은 기어코 승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디 전 총재가 모디 총리에 대해 한 말은 점잖지 않지만 정역형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를 선출한 유권자들을 쳐

/ 신지호 기자

유엔 인권위 “일본 연예기획사 자니즈서 수백명 성폭력 피해”

도쿄서 조사 결과 발표…“日정부, 수사·구제 방법 확보해야”



유엔 인권위 실무그룹, 자니즈 성폭력 문제 조사 결과 발표

일본 대형 연예기획사인 ‘자니즈 사무소’(이하 자니즈) 창업자와 남성 연습생 대상 성폭력 문제를 조사해 온 유엔 인권이사회가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전문가들은 전날 도쿄 일본 기자클럽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자니즈의 연예인 수백 명이 성적 착취와 학대에 휘말렸다는, 깊이 우려할 만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전 조사와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일본에서 진행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수백 명으로 추산했으나,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중국군, “핵탄두 양보다 질 우선” 정밀타격·요격방지 집중

중국이 핵무기의 대규모 증강에 나섰다는 서방의 관측과 달리 핵 프로그램에서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고 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군사 전문가 저우 천밍과 송중핑은 나란히 이같이 주장하며 중국군의 핵무기 전략에 대한 일본과 미국 등의 평가를 일축했다.

지난달 말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군비를 빼르게 늘려온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천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말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이 3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핵과 미사일 전력을 물론,

해군과 공군에 중점을 두고 양적, 질적으로 광범위하고 빠르게 군사력을 향상해 왔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지난 3월 ‘세계 핵군사력 지위 지수’를 발표하며 중국의 핵탄두가 약 410기이며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저우천밍은 중국의 국가 전략은 핵 억지력 극대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50년대 이후 중국은 정밀 타격 기술과 요격 방지(침투), 파괴력을 포함해 핵 억지력 극대화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었다고 설명했다.

/ 남경진 기자

We Connect Scienc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흔적도 없마사라질수있어야
과학이다

지구의 내일을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자연에 흔적을 남기지 말자
과학으로 지구의 내일을 구하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LG엔솔 주도 컨소시엄, 인도네시아에 연내 양극재 공장 착공

권영수 LG엔솔 부회장, 자카르타 방문해 프로젝트 논의

LG에너지솔루션이 주도하는 배터리 컨소시엄이 올해 안으로 인도네시아에 양극재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4일 현지 뉴스통신 안타라와 업계 등에 따르면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부회장은 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을 만나 LG컨소시엄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 자리에서 권 부회장은 LG컨소시엄이 양극재 공장을 연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바흐릴 장관은 이날 권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LG컨소시엄 사업 실현을 위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회동에는 간디 술리스티야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등이 배석했다.

바흐릴 장관은 회동 후 낸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LG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에 대한 투자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한다”며 “투자부는 LG측 투자와 관련한 허가 과정이 잘 되는지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

이에 권 부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 측 협조에 사의를 표한 뒤 사업 추진 합작사 설립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 합작사는 사업이 올해 시작될 수 있도록 LG컨소시엄 참여사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특히 “향후 투자 지분 구조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면 연내 양극재 공장을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컨소시엄에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X인터내셔널 등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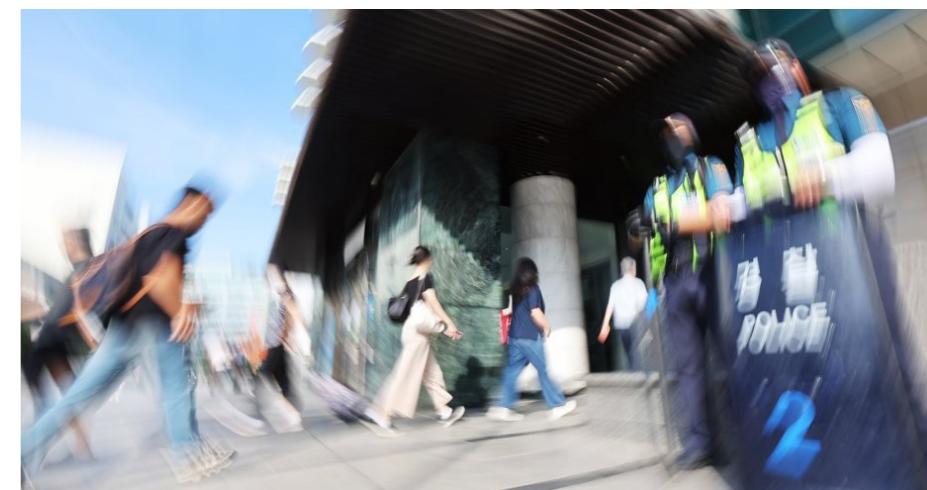
또 LG컨소시엄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국영기업 앤파, 인도네시아 배터리 투자회사 IBC 등과 ‘논바이인딩 투자협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LG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과 손잡고 니켈 등 대규모 광물 확보부터 배터리셀 생산까지 ‘완결형 벤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규모는 약 90억달러(약 11조7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속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LG컨소시엄 프로젝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송원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유통업계 매장 순찰 강화 보안요원 방검복 착용·삼단봉 소지

분당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문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보안 강화 대책 등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 잠실역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데 이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체포되면서 업체별로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서현역 사건의 경우 AK플라자 백화점과 연결된 통로에서 발생했고, 잠실역은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등과 이어진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도 신세계백화점과 인접해 있다.

롯데 유통군은 사별로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사업장이 많은 백화점과 마트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 요원을 늘리고 점포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안전요원들은 평상시에는 수트 차림으로 근무하지만, 방검복과 삼단봉 등 비상

대응 복장을 갖추도록 했다.

이어 내부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직원들에게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신세계그룹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매장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우선 사업장별로 지역 관할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출입구에는 보안 근무자를 배치하고 매장 순찰도 강화한다. 순찰 근무자는 안전을 위해 방검복을 착용하고 삼단봉과 무전기를 소지한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CCTV 상황실 모니터링을 강화해 거동 수상자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직원들에게는 강력 범죄 대응 매뉴얼을 공지하고 안전한 매장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진성훈 기자

알펜시아 노조 “KH그룹, 인사 전횡

중단·경영정상화 마련하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입찰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KH그룹이 임원급의 성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된 여성 임원은 개인의 억울함과 능력을 떠나 내부 승진만으로 최초 임원에 오른 모범이 될 만한 사례”며 “회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명백히 밝히고 알펜시아 임직원 모두에게 조직개편의 정당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알펜시아를 인수한 회사는 평창의 ‘랜드마크’를 약속하며 전문 경영을 표방했지만, 매출이 신장하는 골프 사

업장을 임대하는 알 수 없는 행보를 시작으로 전문성에 의심이 드는 그룹 내부의 낙하산 채용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불만과 부당함을 새로운 경영의 시행착오와 효율화를 위한 과정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구조 개편과 인력 재배치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 알 수 없는 채용 인사 전횡을 멈추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KH그룹은 이와 관련 “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반발한 일부 임원의 일

방적인 주장”이라며 최근 불거진 부당인사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지난 7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했다”며 “다만 이 문제를 제기한 여성 임원의 경우 다른 사안에 따라 해임 통보한 것인 만큼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은 회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구조 개편과 인력 재배치는 사규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임직원 누구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문제는 당사자들 간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강순형 기자

‘카파’ 손목시계 차고 다닌 故 정동현…소탈했던 생전 모습 공개

20주기 추모사진전서 본 고인 유품·사진…남북경협 의지도 담겨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고 정동현 현대그룹 회장 20주기 추모사진전 ‘정동현의 도전 다시, 현대’를 찾은 직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고(故) 정동현 전 현대그룹 회장은 생전 ‘카파’(KAPPA)라는 브랜드 시계를 차고 다녔다고 한다. 과거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삼성시계가 제조·판매하던 대중적 브랜드로, 흔히 대기업 총수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롤렉스 등 명품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에서 개관한 정 전 회장 20주기 추모 사진전에는 손목시계를 포함해 생전 고인의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품이 다수 전시됐다. 평범한 디자인의 손목시계 2점 옆에는 정 전 회장이 쓰던 안경들이 놓여 있었다. 현대백화점 등에 입점한 일반 안경원에서 맞춘 것으로 보이는 평범한 디자인의 블테 안경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이 생전 다른 명품 시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검소하고 소탈했던 고인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교복을 입은 학창 시절부터 군 복무, 배우자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신혼

1998년 10월 현대그룹이 북측과 체결한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개성 공단 부지를 현대아산이 임차하며 작성한 토지 이용증 등 남북 경협의 역사가 담긴 사료도 함께 전시됐다.

2000년 9월 백두산 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해 백두산을 답사했을 당시 쓴 친필 메모에는 “내 왜 이제 앉는가. 이 좋은 천지 산허를. 모든 우리 민족이 이 기쁨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적혔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고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사관계에 대한 고인의 철학이 엿보이는 유품도 있다.

정 전 회장은 생전 작성한 업무노트 한 페이지에 노사문제를 “현대그룹의 취약”으로 거론하며 “임금 동종업종보다 높게 책정”, “근로자들을 등등하게 인간적으로 대우”라는 메모를 남겼다.

사진전은 원칙적으로 그룹 임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내부 행사지만 일반인도 희망할 경우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안내를 받아 관람할 수 있다.

/ 이정민 기자



추모사진전 둘러보는 현정은 회장

KB금융그룹 | **금융파트너**

나의 반쪽을 위한 KB 금쪽같은 펫보험

내 발소리만 들려도 현관에 코를 박고 하루 온종일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나의 반쪽인 너를 평생 지켜주고 싶으니까

아프지 않게, 고생하지 않게 항상 든든하게 지켜줄게

1 반려동물치료비 (특약) **2 무지개다리위로금 (사망) (특약)** **3 반려동물양육자금 I, II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특약)**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기입자는 기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혼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기정되거나 보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급안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라 장기주기 및 최대 경신 나경기 대로 수 있으며, 경신사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阅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증이나 보험금이나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87277호(2023.06.05~2024.06.04)

KB손해보험

오세훈, 호우·폭염 격무 직원에 감사편지…“보상책 마련”

“임금·수당 개선 중앙정부에 건의…실무자 보호·소송시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연이은 이상기후로 격무에 시달리는 서울시 직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과 반복되는 폭우 속에서 서울 시민의 온전한 일상과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서울시 공무원 정년 퇴임식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아버지가 밤낮이나 휴일 상관없이 항상 현장을 향하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던 한 퇴직자 자녀의 말을 언급하며

시 공무원들을 다독였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과 안전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은 공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당연한 책무인 동시에 한두 명의 개개인이 짊어지기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서울시가 공직자들이 지닌 책임의 무게에 합동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오 시장은 “시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재난·안전 분야 등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에게는 인사상 혜택과 경제적 보상책을 마련해서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과 수당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처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실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사후에 감사하고 징계하기보다는 경미한 과실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해서 마무리하고 사전에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규정과 제도의 불명확성을 줄이겠다”며 “공직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억울한 송사가 발생하는 경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서울시 가족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희생과 헌신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더욱 빤틈없이 행하고 살피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 송원기 기자

‘해 쟁쟁’ 마른하늘에 물 잠긴 인천…반복되는 저지대 침수

조석간만 차 큰 서해…지반 높이 낮은 소래포구 등 상습 피해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인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도로가 바닷물 역류로 물에 잠겨 있다.

전국적인 폭염 속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인천 곳곳이 물에 잠겨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에 발생한 현상으로 매년 해안가 저지대에서 비슷한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인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바닷물로 인한 침수 피해 신고가 2건 접수됐다.

전날에는 중구 항동7가 역무선부두 인근 도로에 바닷물이 흘러넘쳤고 이날은 남동구 고잔동 4차로 도로 중 3차로가 물

에 잠겼다. 2건 모두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만조 때 발생했으며, 하수구나 벗물 받아에서 바닷물이 역류해 도로로 흘러넘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소방당국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공판장 입구나 중구 인천해경 인향파출소 앞에도 바닷물이 들이쳤다.

바다를 접한 인천에서는 대조기나 ‘슈퍼문’ 현상 등으로 해수면 높이가 높아질 때마다 침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서해 중에

가 훨씬 큰 데다 지반 높이가 낮은 지역이 해안가에 여러 곳 있어 물에 잠길 가능성 이 높다.

인천시에 따르면 해수면 산부가 지정한 인천 저지대는 소래포구·인천조위관 측소·남항부두·인천수협·인천신항 등 5 곳이다. 이 중 소래포구의 지반 높이(지반 고)가 906cm로 가장 낮고 인천수협(930 cm), 남항부두(973cm), 인천조위관 측소(1 천cm) 등이다.

해수면 높이가 이를 넘어서면 침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음력 그믐과 보름 무렵인 대조기 때 소래포구 어시장 등이 물에 잠기곤 한다.

이번 보름 대조기 기간(8월 2~5일)에도 인천 지역 조위는 이날 오전 6시 39분께 968cm에 달해 일부 저지대의 지반 높이를 넘어섰다. 이는 국립해양조사원의 4 단계 조위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위험 중 ‘경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위관측소가 있는 전국 34개 해역 가운데 ‘경계’ 단계인 곳은 인천과 군산 2곳 뿐이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서해 중에

서울시 다중밀집시설·지하철 범죄예방 강화…‘무관용’ 대응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전강화’ 지침…경찰 상주·범죄예고 즉시 고발

잇따른 흉기난동과 살인 예고 등 일련의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중밀집 시설과 장소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지역 순찰과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대상 범죄예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서울 시내 범죄예방 활동 강화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위원들은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에 치안 활동 강화 지침을 내려보냈다. 자체경찰위는 시내의 다중밀집 시설 등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안전 대책 수립과 순찰 확대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또 자치경찰이 경찰과 함께하는 순찰 및 방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서울경찰청이 관리하는 만큼 자치경찰위는 서울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 운영을 맡은 서울교통공사도 예기치 못한 사태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공사는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시민과 역 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근무 준수사항 공문을 전파했다.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 역사 내 CC(폐쇄회로TV)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역사 안을 순찰할 때 지하철보안관·경찰 등과 동행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날부터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범죄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에는 다수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한다.

외부에 노출된 직원 업무공간은 문을 잠그고 근무하고 폐페스프레이·방검복·안전방패 등 직원에게 지급된 안전보호장비 도순찰 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공사는 시민들에게도 지하철 역사 내 범죄행위를 목격할 경우 경우 경찰(112) 및 대테러신고(111)와 함께 공사 고객센터(☎ 1577-1234), ‘또타지하철’ 앱의 민원신고 기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공사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는 불법”이라며 “범죄예고 글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진성훈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학대 혐의로 직위해제 교사 일부 복직 검토”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중 일부에 대한 복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만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교사들의 사례를 하나하나씩 면밀히 들여다보며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사들의 복직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최근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관내 교사는 모두 4명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특수교사 를 이달 1일 복직시켰다.

이 특수교사는 재판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 노승준 기자

서도 인천 해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조차가 큰 편에 속한다”며 “절대적인 해수면 높이가 높아 저지대는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대조기마다 해수면 정보를 각 군·구와 어촌계에 전파해 미리 주의를 요구하는 등 사전 대비에 나서고 있다.

/ 김승윤 기자

● 금융으로 세상을 ●



신한은행과 고객의 상생 스토리

“내 꿈이 멈췄을 때
다시 달릴 힘을 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좋아서 시작한 학원인데
코로나라는 생겨지도 못한 현실에 부딪혀
'학원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대출 만기 연장에 원리금 상환 관리까지
제가 몰랐던 여러 방법들을
신한은행이 먼저 알려주고 쟁겨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
저와 함께 해준 신한은행 덕분에
아이들 꿈도, 저의 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객에게 힘이 되는
상생금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경기야화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대출 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119 개인사업자 119 주택담보대출 표기워크아웃 등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으로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응원합니다.

● 이 찾고는 신한은행 일상인자경의 상생금융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프로그램은 담당 조정의 실무자를 찾을 때에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고객센터(1599-8000)에 문의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3-1373-1호(2023.07.18 ~ 2024.07.18)

긴급 금융지원과 함께 신한은행을 통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제주도, 베트남 현지서 수산물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아시아 한상 베트남 북부지회 등 참여

제주도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시아 한상 베트남 북부지회, 제주도 수산업협동조합장협의회와 '정정 제주수산물 수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단체는 청정 제주수산물의 베트남 수출과 판매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공동마케팅 프로모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와 제주도 수협 방문단은 협약식에 이어 베트남 현지에서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제주 수산물 수출 계

약 상담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수출상담회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10월 제주도수산업협동조합장협의회 등과 현지 바이어를 연결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관련 행사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주 수산물을 첨병으로 베트남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승원 기자



팬스타 드림호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행보 본격화…기대·우려 교차

"금융시장 메기 역할" vs "자본금 등 체급 차" 시각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은행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3일 DGB대구은행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최근 조작개편에서 시중은행 전환 인가 추진을 위해 DGB 금융지주와 공동으로 '시중은행 전환 전담팀(TFT)'을 구성했다.

시중은행 전환 TFT는 관련 사업계획 수립·조정, 시중은행 전환의 장점을 활용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DGB대구은행은 앞서 은행장 직속 전 담 조직인 '시중은행 전환 추진팀'을 만

들고 시중은행 전환 인가 절차 진행을 위한 컨설팅팀을 시작했다.

은행 측은 오는 9월 말까지 금융 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할 목표를 세웠다.

이처럼 시중은행 전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해신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중은행 전환 이유로는 먼저 '조달 금리 이점'이 꼽힌다. 전국 단위로 영업 범위를 넓히고 낮아진 조달 금리를 앞

세워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전국에서 이익을 창출한 뒤 대구·경북 지역에 재투자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은행 경쟁력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영업 구역 제한 등 기존 성장의 한계를 타파하며 금융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진출 확대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방침이다.

은행 측은 "전국에 걸쳐 핵심 예금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에 더 효율적인 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금융시장 쇄신의 '메기'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우

려가 나온다. 먼저 DGB대구은행의 자본금이 6천806억 원에 불과해 수조 원 규모인 기존 시중은행들과 체급 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신규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으나 여·수신 비중을 바꾸는 정도의 실질적인 경쟁은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금융권의 한 인사는 "DGB대구은행 규모가 시중은행보다 상당히 작아 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이라는 이유로 받는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하고 경쟁력 제고, 강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대구·경북에 더 든든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중은행 전환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강우 기자

매 항차 30명 한해 선착 판매

팬스타그룹은 여름 휴가철인 8월 한 달간 오사카크루즈와 대마도고속선 운임을 대폭 할인하는 '엔저 톱가 이벤트'와 '게스트하우스 파티 인 오사카크루즈 이벤트'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엔저 톱가 이벤트는 오사카크루즈 스탠더드급 객실을 대상으로 왕복 총액 운임(유류할증료, 터미널이용료, 일본출국세 포함)을 정상 대비 50% 할인한다.

정상가 30만원(1인당)인 스탠더드 트윈룸(정원 2명)은 15만원에, 27만원인 스탠더드 병커풀(정원 4명)은 13만5천원에 각각 판매된다.

부산~대마도 항로의 고속선 팬스타쓰 시마링크호도 왕복 총액 요금을 50%를 할인한다.

부산발 승선 후 3일 이내에 귀국편을

이용하는 조건이다.

이코노미석(정상가 20만7천원)은 10만4천원부터(주중 기준), 프리미엄석(22만7천원)은 11만4천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인 오사카크루즈 이벤트는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위한 특가 상품으로, 왕복 3만4천원(유류할증료 등 부대비용 제외)에 크루즈를 즐길 수 있다.

만 19~30세가 대상이며, 매 항차 30명에 한해 선착순 판매한다.

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여름휴가나 방학을 이용해 떠나는 일본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숙박 시설 부족과 비싼 요금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선박 여행이 주는 여유로움과 낭만을 적은 비용으로 즐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경준 기자

낮 시간대 농사일 중단

"농작물·가축 관리도 철저히 해야"



폭염 속 평창서 여름 배추 출하 한창

벼, 밭작물, 시설 작물, 과수 등 주요 작물별 대처 요령도 제시됐다.

먼저 벼는 물 깊이 3~4cm 정도로 물 흘러대기를 해 온도를 낮추고, 구산과 칼륨 비료는 고온에서 흡수가 억제되기 때문에 기준량보다 조금 더 준다.

밭작물은 주 1~2회가량 토층 15cm 까지 충분히 관수해 주고, 고랑에 부직포나 피복재를 덮어 수분 증발을 방지한다.

시설 작물은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

고온 시 환기팬을 적극 가동하고, 차광망을 설치해 온도 상승을 막아준다.

과수는 미세살수와 주기적 관수, 자라는 풀을 제거하지 않는 초생재배, 적기 예취 등의 방법으로 고온과 핫밸 데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축산 농가는 섭씨 30~35도의 고온이 12일 넘게 이어지면 가축의 하루 체중 증가율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장을 통해 축사에 시원한 바람이 드나들도록 하고, 천정이나 벽에 단열재를 사용해 복사열 상승을 막는다.

축사 지붕에 물 뿌리기, 그늘막 설치 등도 가축이 받는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다.

/ 손지수 기자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폭염 속 농업 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과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대책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까지는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여름철 폭염이 계속될 때 농작업을 하면 체감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야외에서 농작업을 할 경우에는 아이스 패이나 모자, 그늘막 등을 사용해야 한다. 나 훌로 작업을 최대한 피하고 다수 인원이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다. 작업자는 휴식 시간을 시간당 10~15 분가량 자주 짧게 가지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은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외부 전문교육 강사를 초빙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강사 초빙이나 학사 일정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자체 강사 양성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부터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강사 양성과정을 마련해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스토니브루 응급 의료교육원에서는 도내 학교 보건교사 18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강사 양성과정 교육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 통과자들은 이후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운영하는 강사 과정을 밟게 된다.

/ 윤희진 기자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50주년

철강과 함께한 50년 미래소재와 함께할 100년

지난 50년간 철강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온 포스코를
앞으로는 친환경 미래소재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Green Tomorrow, With POSCO

제주 학교 보건교사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로 양성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보건교사를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강사로 양성해

강사 인력풀을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학교

에디슨모터스 부채 100억원 떠안은 전북도, 회수할 수 있을까



에디슨모터스 생산 전기자동차

전액 회수 불가능…도 “15억~34억원 회수 예상”

전북도와 전북신보는 KG모빌리티가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하기로 한 만큼 KG 모빌리티에 대해 청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신보가 대출 변제한 100억원 중 보증수수료를 제외한 손실 발생액인 회생(구상) 채권 신고액은 94억원으로 전북도는 이 가운데 15억~34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정확한 환수 예상액을 추정할 수 없으나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사례를 참고하면 15억~34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북신보가 채권자로서 적극 대응해 회수액을 높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디슨모터스가 공장 신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4억원을 받았는

데 파산 시 서울보증보험에 이 금액을 전액보상하고 KG모빌리티가 인수할 경우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고 덧붙였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GM 등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기술력을 갖춘 중견·벤처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9년 말부터 본격화됐다.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은 2019~2024년 총 5천171억원을 투자해 32만5천여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천7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까지 목표였던 24만대 생산 계획은 2천46대에 그쳤고 일자리 창출은 287개에 불과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 임지성 기자



동해 무릉오션녀탕

산속 힐링 쉼터 ‘동해 무릉오션녀탕’

폭염 속 인기…자연 친화적 물놀이 시설

이용객 작년보다 93% 늘어

경에서 피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심이 60~90cm로 비교적 알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다수 찾고 있다.

천하절경을 자랑하는 무릉계곡 입구와 가깝고 주변에 무릉별유천지, 동해무릉건강숲 등 관광지와 인접해 있는 이점 덕분에 가장 이후 지난 1일 기준 8천922명이 다녀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천632명보다 약 93% 증가한 수치이다. 일일 평균 430명, 최대 1천여 명이 찾고 있어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총방문객 수 1만1천703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과 연계해 20일까지 운영되는 무릉오션녀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 강희찬 기자

영동군 필리핀 이어 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충북 영동군이 농촌지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기로 했다.

군은 4일 베트남 박리에우성 사회 보훈 노동청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 행정, 문화 교류 등을 골자로 하는 우호 협약도 맺었다.

이로써 군은 자매도시인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계절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게 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계절근로자 39명을 필리핀 두마케티시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올해 192명을 확보한 바 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도입을 더욱 확대해 농가에 안정적인 일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베트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신현준 기자



영동군 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든든함은 길게!
기다림은 짧게!**

유병장수의 시대, 보험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당신의 긴 인생을 위해
간편하게 맞춤 패키지로 가입하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짧아진 만큼
든든한 일상이 더 길어집니다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

상담문의 080.363.6363

한화생명 간편패키지 보장보험 (갱신형·무배당)

더욱 새로워진 간편패키지 보장보험을 만나보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여자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내용 및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노인이 버린 ‘평생 모은 돈’ 발견 신고한 시민에 감사장

버려진 가방 속에 신문지로 쌓 5만원권 돈뭉치 1천745만원 나와



모범 시민 감사장 수여식

을 발견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신문지에 둘둘 말린 5만원권 현금 1천745만원이 있었다. 꾸깃꾸깃한 신문지에는 자세히 보니 ‘평생 모은 돈’이란 글씨와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이를 본 박씨는 누군가의 귀중한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경찰서를 방문해 분실물 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쓰레기봉투를 버린 사람을 특정해 돈뭉치 주인을 찾았다. 그는 인근에 훌로 거주하던 70대 독거노인으로, 치매 증상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돈 주인인 치매 노인은 경찰이 집에 방문했을 때도 돈을 버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발견된 돈은 치매 노인이 젊었을 때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번 돈과 기초생활수급금 등을 차곡차곡 모은 전 재산이었다.

경찰은 치매 노인이 또 돈을 잃어버릴까 봄 수소문해서 친누나를 찾아 직계가족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영도 아산경찰서장은 감사장 수여식에서 시민 박씨의 적극적인 대처로 전 재산을 잃은 주인을 도운 선행에 감사를 표시했다. / 권정석 기자

광주경찰, 다중밀집지 특별방법으로 ‘묻지마 범죄’ 예방

광주경찰청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4일 특별 방범 활동을 전개했다. 인용환 청장 주재로 각 경찰서장, 형사·생활안전·사이버수사·경비·112상황실 등 모든 기능이 참여한 지휘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 서현역 등 연이어 발생한 사건의 장소가 다중밀집지 역임을 고려해 송정역, 버스터미널, 월드컵경기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종교공원, 롯데아울렛수안점, 신세계백화점 등 6곳에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야간에는 삼무지구와 첨단지구 유흥 가, 전남대 후문 상가 밀집지 등의 순찰



승정역 특별 방범활동 나선 임용환 광주경찰청장(가운데)

을 강화한다. 경찰서별 취약지에도 112 순찰차와 경찰특공대 등을 중점 배치하고, 광주시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손주현 기자

Life Sensation

청정에 스마트를 더한 AI 기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는 삶

*후선이 지향하는 삶에 대한 연출된 표현으로, 각동작을 위해서는 리모컨과 ThinQ 앱 조작이 필요합니다.

LG WHISEN | Objet Collection



자동 청정 관리
필터클린봇



온도/습도 자동 조절
스마트케어



자동 절전모드
레이더센서 외출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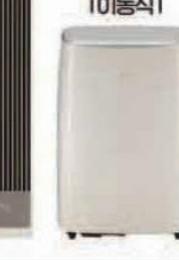
World EXPO 2030
BUSD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전자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스탠드|



|창호형|



엘지이닷컴에서 확인하세요

LGE.COM

*하루 8시간 사용 기준, 총 56시간(1주일) 누적 사용 시 필터클린봇 청소 기능 작동(※에어컨 운전 종료 시 10분간 미작동 시나 리모컨으로 필터클린봇 청소 기능 작동 가능)*청소 성능: 자사 시험으로 Unit 면적 1m²면 보무리기 1회를 필터에 부착 후 먼지 제거 정도로 확인하였으며, 필터클린봇이 필터를 청소하더라도 8개월 주기로 먼지를 비워야 하며 수동으로 필터 청소도 가능합니다. *냉방 성능 유지: 실험조건 - 실내기 강풍 저동운전/ 습입구 차폐 후 냉방 타스트 걸고, 실내 27°C, 실외 35°C, 실험모델 F-Q23LADRAI, 실험결과 - 열교환기 후면 60% 이상 억제 시 냉방 성능 20% 이하 *자사 시험 결과로 실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터의 청소 정도는 사용 환경이나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모컨의 편리한 버튼을 놀려서 스마트케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케어 기능은 스마트케어 기능이 있는 모델에 한하여 스마트케어 기능은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품 내의 레이더 센서를 통해 에어컨 동작 중 인체 부재 여부를 자동 감지하고 부재일 경우 설정에 따라 패작 절전모드로 전입하거나 전원을 off 하여 에너지를 절약해 줍니다. *리모컨의 설정 버튼을 놀려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필터클린봇, 스마트케어, 레이더센서 외출질전 기능은 스텠드형 제품의 기능 설명이며, 필터클린봇과 레이더센서 외출질전 기능은 스텠드형 럭셔리 모델에 한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건강한 지구를 위한
첨단 기술의 노력

SK하이닉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SCC* 멤버 가입
유해물질 관리 역량을 인정하는 IECQ QC 080000* 인증 획득
탄소배출 저감 제품군에 수여하는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반도체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는 SSD 재활용 활동
멸종 위기 생물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경연 개최

*SCC (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 :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협의체
*IECQ QC 080000 : 국제전자기술위원회에 의해 발효된 유해물질 관리 국제표준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니다

SK hynix

김하성, 시즌 23호 도루 추신수 넘어 한국인 빅리거 최다 도루

종전 기록은 추신수가
2010년에 작성한 22개

김하성(27·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코리안 빅리거 한 시즌 최다 도루 기록을 바꿔놨다. 김하성은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펙코 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 앤젤레스 다저스와의 홈 경기에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1회에 시즌 23번째 도루를 성공했다.

1회말 선두 타자로 등장한 김하성은 다저스 신인 선발 보비 밀러의 4구째 낚자 크게 떨어진 낮은 커브를 몸을 낮추며 밀어 쳐 우천 안타를 만들었다.

다음 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중견수 뜬공으로 물려났고, 후안 소토도 루킹 삼진을 당했다. 소토가 삼진으로 물려날 때, 김하성은 2루로 달렸고 몸을 오



샌디에이고 김하성

른쪽으로 돌리며 태그를 피해 2루를 터치했다. 다저스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세이프 판정이 유지됐다.

김하성은 2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2경기 만에 도루를 추가했고, 23번째 도루로 '코리안 빅리거 한 시즌 최다 도루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추신수(현 SSG 랜더스)가 2010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작성한 22개다. 빅리그 3년 차에 '공·수·주 완벽한 내야수'로 자리매김한 김하성이 13년 만에 추신수의 기록을 넘어섰다.

/ 이정수 기자

한국 양궁, 세계선수권 남자단체·혼성전 금메달…김우진 2관왕

대회 초반 부진 씻어내고 남자단체서 대회 첫 금메달…김제덕 결정적 한 발



55-56 56-55 57-52)로 물리쳤다.
리커브와 컴파운드를 통틀어 이번 대회 한국의 첫 금메달이다.

리커브에서 두 대회 연속 전 종목 싹쓸이를 목표로 잡은 대표팀은 앞서 진행된 여자 단체전에서 16강 탈락하고 남자 개인전에서 1명만 8강 고지에 올라 분위기가 가라앉은 터였다.

2024 파리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세계선수권이어서 한국 양궁의 기량 저하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그러나 리커브 남자 대표팀이 흔들림 없이 금빛 과녁을 공략해내며 분위기를 확 바꿨다.

리커브 남자 대표팀은 2021 양크턴 대회에 이어 단체전 2연패도 이뤄냈다.

결승전에서 한국은 2020 도쿄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메테 가조즈를 앞세운 뒤르키예와 2세트까지 2-2로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승부처였던 3세트 마지막 사수로 나선 김제덕이 10점을 쏘며 56-55, 간발의 차로 세트 점수 2점을 가져왔다.

한국은 여세를 몰아 4세트도 가져오며 승부를 마무리했다.

/ 최준용 기자

한국 남자 양궁이 2023 베를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내며 '최강'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개인전 16강 탈락의 고배를 마신 남자 양궁 '간판' 김우진(청주시청)은 혼성 단체전(혼성전)에서도 우승해 2관왕에 오르며 하루 만에 반전 드라마를 썼다.

김우진과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은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대회 리커브 남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난적' 뒤르키예를 세트 점수 6-2(56-54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여자 축구대표팀 귀국…항저우 AG 기약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의 콜린 벨 감독 등 코치진과 선수들이 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월드컵 조별리그를 1무 2패로 마치며 탈락한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귀국했다.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조별리그 일정을 마무리하고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거주지인 미국으로 곧장 돌아간 16세 혼혈 선수 케이시 유진 페어(PDA)를 제외한 선수단이 모두 들어왔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독일, 콜롬비아, 모로코와 조별리그 H조에서 경쟁해 1무 2패에 그치며 조 최하위(승점 1)에 머물러 탈락했다.

지난달 25일 콜롬비아에 0-2, 30일 모로코에 0-1로 지며 사실상 16강 진

출이 어려워졌고, 대승이 필요했던 3일 독일과의 최종 3차전에선 1-1로 비겨 전패를 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2015년 캐나다 대회 때 사상 첫 16강 진출을 달성한 뒤 2019년 프랑스 대회에선 조별리그 3연패로 탈락했던 한국 여자 축구는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인 벨 감독과 4년 가까이 함께하며 이번 대회를 준비했으나 더 높아진 세계의 벽을 실감했다.

최종전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 독일의 16강 진출을 막아 세우며 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승점을 따낸 건 '유종의 미'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FIFA 랭킹 72위 모로코에 덜미를 잡히는 등 냉정한 현실도 동시에 확인했다.

세대교체 필요성을 비롯한 여러 과제를 안고 돌아온 대표팀은 다음 달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기약한다. 9월 25일부터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에서 한국은 홍콩, 필리핀, 미얀마와 E조에 속해 조별리그를 치른다. 조별리그 각 조 1위 5개국과 2위 중 성적이 좋은 3개국이 8강에 올라 메달을 다투는다.

한국은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에서 최근 3개 대회(2010 광저우,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동메달을 목에 건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다.

아시안게임 이후엔 10월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등이 이어진다. 6월 16일 이후 종단됐던 국내 여자 실업축구 WK리그는 오는 22일 재개 예정이다.

/ 곽현수 기자

샌디에이고 1번 김하성·7번 최지만 2번째 코리안 빅리거 야수 동반 선발

최지만(32)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이적 후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샌디에이고 최고 선수'로 꼽히는 김하성(27)은 예상대로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펙코 파크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한다.

김하성이 1번 타자 2루수, 최지만은 7번 지명타자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인 야수가 같은 팀에서 동반 선발 출전하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예약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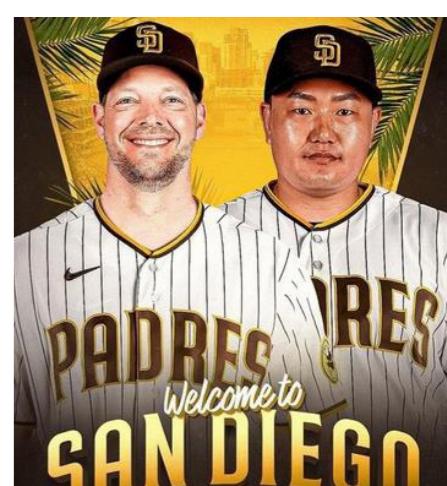
다.

최지만은 지난 2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샌디에이고로 트레이드됐다.

피츠버그에서 배지환과 함께 뛰던 최지만은 샌디에이고에서는 김하성과 동료가 됐다. 최지만은 올해 4월 3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고 배지환과 함께 선발 출전해 메이저리그 최초의 '한국인 타자 동반 선발 출전' 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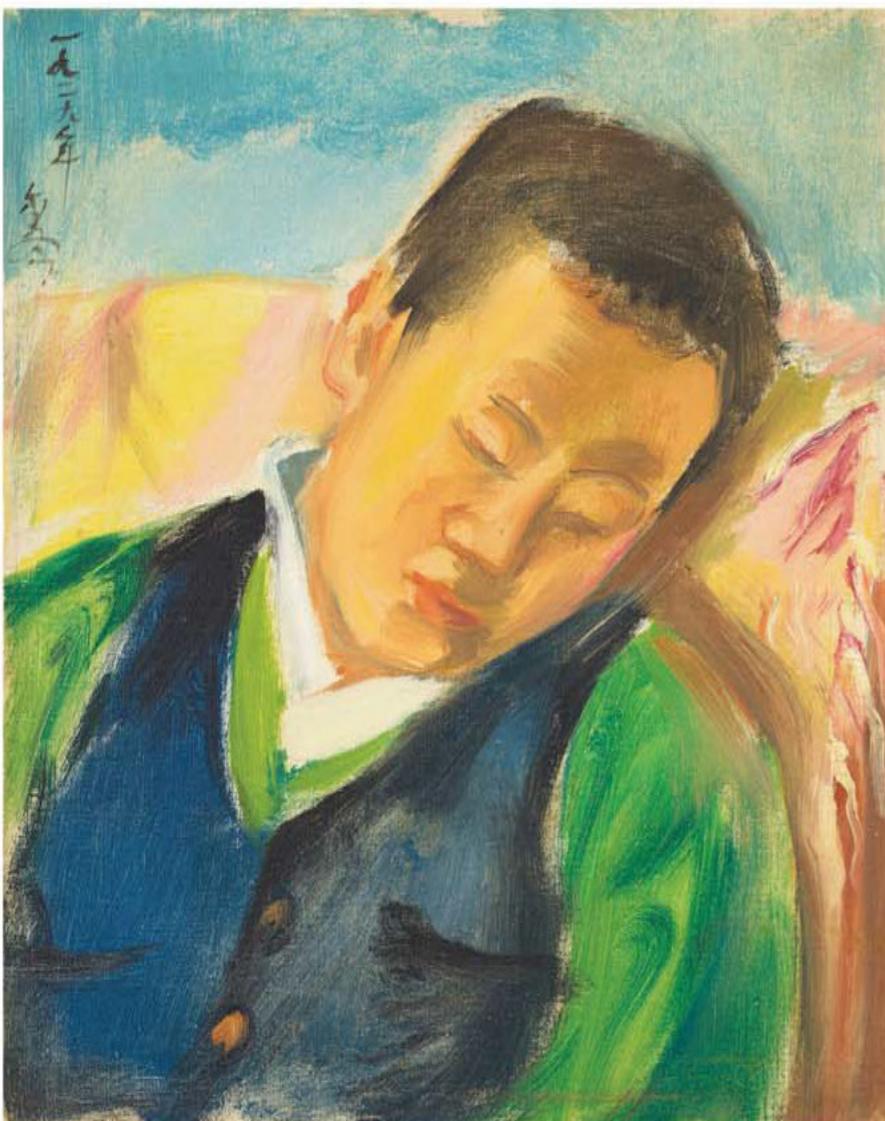
최지만과 배지환은 피츠버그에서 총 5경기에 함께 선발 출전했다.

'두 번째 사례'도 최지만이 만든다.



김하성은 올 시즌 '최우수선수(MVP) 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지만이 샌디에이고 바라는 '장타력'을 과시하면, 김하성과 최지만이 동반 선발 출전하는 경기는 더 늘어날 수 있다.

/ 백도영 기자



김중태, <사계>, 1929,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2023. 6.8.-8.20.

Seasons
Lee Kun-hee Collectio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Art



경기도 미술관

나
Seasons

경기도미술관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대작 4파전 이어 '호러 4파전'...한국 공포영화 줄줄이 개봉

칸 기립박수 받은 '잠'·부천영화제 작품상 '신체모음.zip'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간 한국 대작 4편이 힘쓸고 간 극장가에 한국 '호러 영화 4파전'이 이어진다.

정통 공포물부터 독특한 스토리의 스릴러물까지 다양한 장르 영화가 이달 말부터 관객을 차례로 찾아간다. 영화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다음 달 6일 개봉하는 유재선 감독의 '잠'이다.

유 감독의 첫 장편이 영화는 앞서 제76회 칸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돼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됐다.

당시 독특한 스토리와 예상치 못하는 전개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끌어냈다. 비평가 주간 진출작으로는 이례적으로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영화는 수면 중 이상행동을 보이는 남편 현수(이선균 분)와 그를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아내 수진(정유미)의 분투를 그린다.

유 감독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2017) 연출부 출신으로, 봉 감독과는 사제 간 같은 사이다. 그는 칸영화제 인터뷰에서 "봉준호 감독에게서 영화 만들기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다"며 자신도 모



영화 '잠' 포스터

르는 사이 '잠'을 촬영하며 봉 감독을 따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봉 감독 역시 '잠'을 관람한 이후 "최근 10년간 본 영화 중 가장 독창적인 공포 영화이자 영리한 데뷔 영화"라는 극찬을 남겼다.

현실성 있는 공포를 다룬 영화 '타겟'은 이달 30일 극장에 걸린다.

박희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살인범과 중고 거래를 했다가 범죄의 표적이 된 평범한 직장인 수현(신혜선)의 이야기를 담는다.

김성균은 사건을 수사하는 사이버수사대 소속 주 형사 역을, 강태오는 주 형사의 후배 나 형사 역을 각각 맡았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중고 거래라는 소재를 이용해 관객들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상상을 하게 한다.

이달 중 개봉하는 '신체모음.zip'도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다.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작품상 수상작이다.

감독 6명이 각각 만든 에피소드를 연결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한 독특한 형식

을 취했다. 최원경, 전병덕, 이광진, 지삼, 김장미, 서형우 감독이 참여했다.

'악취', '귀신 보는 아이', '엑소시즘.넷', '전에 살던 사람', '끈' 등 6개의 에피소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준다. 사이비 종교 단체를 취재하는 기자 시경(김채은)이 종교의식에서 신체의 조각이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김선웅 감독이 이른바 '치악산 괴담'에서 영감을 받아 연출한 '치악산'은 다음 달 중 관객을 찾는다.

1980년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달아 발견되자 이와 관련된 여러 괴담이 만들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치악산'은 산악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이 이 산에 올랐다가 겪게 되는 기이한 일을 그린다. 괴담의 중심에 선 현장에 갔다가 무서운 일을 경험한다는 설정이 영화 '곤지암'을 떠올리게 한다. 윤균상이 산가자의 대표 민준을 연기했으며 김예원, 연제욱, 배그린, 이태환 등이 출연했다.

/ 김희성 기자



영국 BBC 라디오 1 '라이브 라운지'에서 노래하는 정국

BTS 정국 '세븐', 영국 싱글차트 29위...3주 연속 진입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솔로곡 '세븐'(Seven)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3주 연속 진입했다.

4일(현지 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정국의 '세븐'은 지난주보다 16계단 내려온 29위를 기록했다.

이 곡은 발매 직후 이 차트에서 K팝 남자 솔로 가수로서는 싸이 '강남스타일'(2

위)에 이후 가장 높은 순위인 3위로 진입 했다. 그룹 뉴진스의 미니 2집 '겟 업'(Get Up) 트리플 타이틀곡 '슈퍼 샐리'(Super Shy)는 전주보다 9계단 하락한 61위로 4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피피티 피피티의 히트곡 '큐피드'

는 지난주보다 18계단 내려온 80위로 19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 신정민 기자

SBS·MBC 금토극 접전...김래원 '소옆경2' 먼저 웃었다

'소옆경' 첫 회 시청률 7.1%... '연인'은 5.4%로 출발



김래원(왼쪽)과 남궁민 (사진=SBS, MBC 제공)

MBC와 SBS의 금토드라마 초반 맞대결에서 김래원 주연의 SBS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이하 '소옆경2')가 우위를 차지했다.

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방송된 '소옆경2' 첫 회 시청률은 7.1%로 집계됐다.

첫 회 방송에서는 시즌1 최종회의 엔딩

장면이었던 '주차타워' 사건의 이전으로 돌아갔다.

진호개(김래원)는 한국 최초의 연쇄방화범 하영두(최원영)에게 범인을 찾기 위한 여려 조언을 구하지만, 한 발 늦고 만다. 용의자를 헤아 주차타워에 올랐다가 겨우 목숨을 구한 진호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유력 용의자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결박당한 채 불에 타 죽어있고, CCTV마저 다 타버려 수사에 난항을 겪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영지하상가와 마중공장단지 자재창고에서 동시에 큰 화재가 발생한다.

시즌2에서는 전 시즌보다 피해 규모가 크고 위협적인 재난 상황들이 펼쳐졌다.

수사망을 교묘하게 잘 피하는 듯 보이는 연쇄 방화범의 정체, 새로 합류한 캐릭터들이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를 모으는다.

한편 같은 날 오후 9시 50분 처음 방송된 남궁민 주연의 MBC '연인'은 첫 회 시청률 5.4%로 출발했다.

드라마는 인조 14년(1636년) 봄, 고장 능군리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전개를 펼쳐낸다. 평화롭던 마을은 의문의 사내 이장현(남궁민)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떠들썩해진다.

운명의 도련님을 만나는 꿈을 꾸는 양 가대 애기씨 유길체(안은진)와 이장현의 젓 만남도 그려졌다.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유길체, 그리고 그런 유길체에게 속절없이 반해버린 이장현의 모습은 애恸함과 설렘을 자아냈다.

/ 이은정 기자

시카고 대형 음악축제 무대 선 뉴진스...7만 관객 떼창

그룹 뉴진스가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의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에 올랐다.

뉴진스는 지난 3일(현지 시간) 시카고 그랜트파크에서 열린 '롤라팔루자 시카고'에서 공연했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4일 전했다. 뉴진스는 약 45분간 12곡을 라이브로 열창하며 7만여 명의 관객을 열광시켰다.

멤버들은 "뉴진스의 두 번째 여름을 이렇게 뜨겁고 아름다운 롤라팔루자 무대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인사를 건넸다.

이어 밴드 버전으로 편곡한 '쿠키'(Cookie)와 '허트'(Hurt)를 비롯해 'OMG', '디토' 등 히트곡 무대를 연달아 선보였다. 최근 발매한 신보 '겟 업'(Get Up)에 수록된 6곡도 모두 라이브로 소화했으며 7만여 명의 관객은 열띤 떼창으로 환호했다고 어도어는 전했다.

멤버들은 "뉴진스의 두 번째 여름을 이렇게 뜨겁고 아름다운 롤라팔루자 무대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 박소희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기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23 DAEJEON ZERO O'CLOCK FESTIVAL

2023 DAEGEON ZERO O'CLOCK FESTIVAL

대한민국 경복수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

잠들지 않는 대전,
1시까지 않는 재미!

2023 대전 1시축제

8.11.(금) - 17.(목)

중앙로 일원(대전역-옛 충남도청)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우리금융그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상속, 증여, 세금?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

우리에게 신탁하세요

고객을 위한 전문가들의 종합컨설팅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마음을 기록하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상속재산 배분	걱정 없는 증여플랜	고령사회 대비 자산관리	사회적 책임 실현	생애 종합자산관리
신탁된 재산을 고객님의 의지대로 신속 정확하게 집행	재산 증여 후에도 일정 기간 통제 가능	향후 치매·질병 발생 시에도 안전한 자산관리 가능	장애인사랑신탁, 우리나눔신탁 등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및 최적의 플랜 제시

우리 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이익 또는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고객님께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수수료, 중도해지, 운용방법, 계약종료 등), 고객님은 신탁계약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수수료, 중도해지, 계약종료 등에 관하여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 수수료는 신탁재산(운용자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신탁 상품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4515(2023.05.24~2023.12.31)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038호 (2023-06-07 ~ 2024-06-06)

